



한국인의 행복과 일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이채정, 삶의질그룹 삶의질데이터센터장 허종호

요약 SUMMARY

01 일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

- 개인의 행복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영향받으며, 일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및 관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임
- 종사하는 일이 어떤 특성을 갖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행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본 브리프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근무환경 요인 중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가 직무만족도 및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함

02 근로시간과 행복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Hours worked)이 긴 국가에 해당하며,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자는 OECD 평균(연간 1,687시간)보다 연간 221시간(9.2일) 더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초과근로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직에 종사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의 정규근로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03 고용형태와 행복

-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1인 사업자, 고용주 등)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20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3배 수준인 26.1%이고, 자영업자 비율은 24.6%로 콜롬비아(50.1%), 브라질(32.6%), 멕시코·그리스(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다음으로 높음

04 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

-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우(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영업자 등)는 일에 대한 객관적 보상뿐만 아니라 주관적 보상도 충족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행복 불평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PART
I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당신은 행복합니까?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 회사들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현대의 일하는 세계의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결국 내적인 것으로서 우리 정신의 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다.

-알랭 드 보통(2009), 「일의 기쁨과 슬픔」 중에서

○ 개인의 행복은 본인이 속한 사회 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침(Easterlin, 1974)

-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 지위도 행복과 연관성이 높음(Leary et al., 2014; Ward & King, 2016)
- 일은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행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 일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검토

- 개인 특성, 근무환경, 조직 특성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함
 - 근무환경은 근무시간, 역할 과다, 고용형태 등의 특성을 포함함
- 근무환경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시간과 고용형태의 비자발적 선택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안준엽 외, 2015)
 - 장시간 일할수록, 비자발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비정규직, 시간제 등)의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었을 경우 행복감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
- 근로시간과 고용형태는 개인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일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 어떤 특성을 갖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행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¹⁾ 데이터를 토대로, 근무환경 요인 중 근로시간과 고용형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시 직무만족도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근무환경 요인을 개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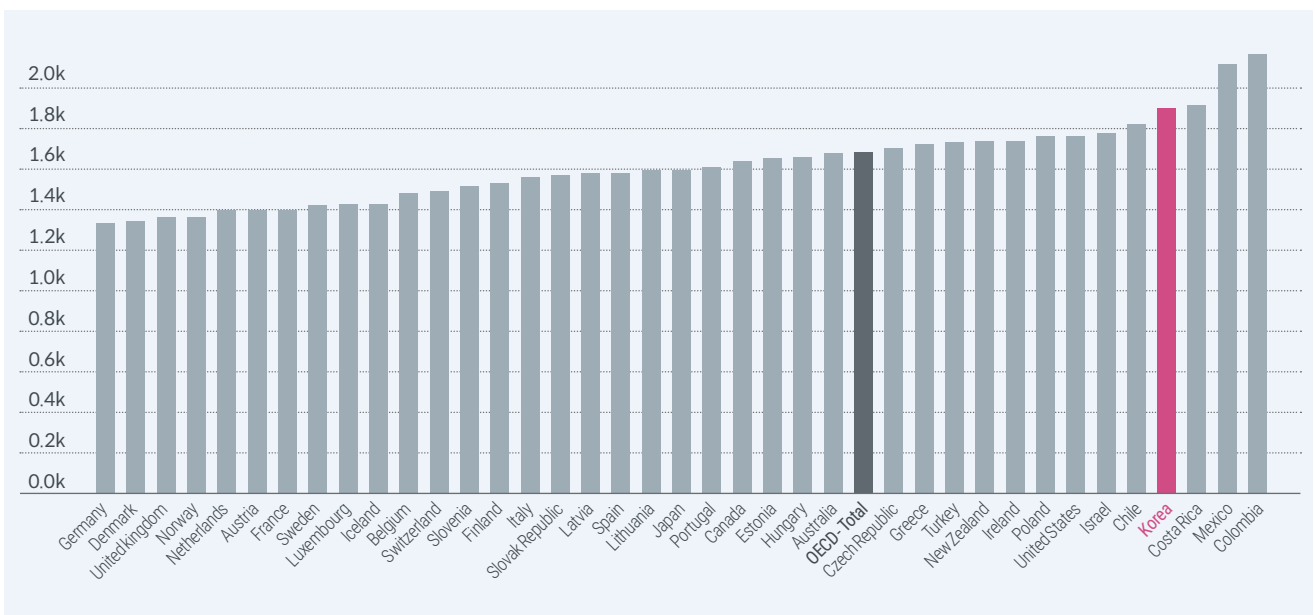
1)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2020년 기준 6,500가구 내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됨. 본 브리프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PART
II

근로시간과 행복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Hours worked)이 긴 국가에 해당하며,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자는 OECD 평균(연간 1,687시간)보다 연간 221시간(9.2일) 더 일하는 것으로 확인
 -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타리카(1,913시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임
 -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로 연간 1,332시간으로 집계되었고, 덴마크(1,346시간), 영국(1,367시간), 노르웨이(1,369시간), 네덜란드(1,399시간) 등도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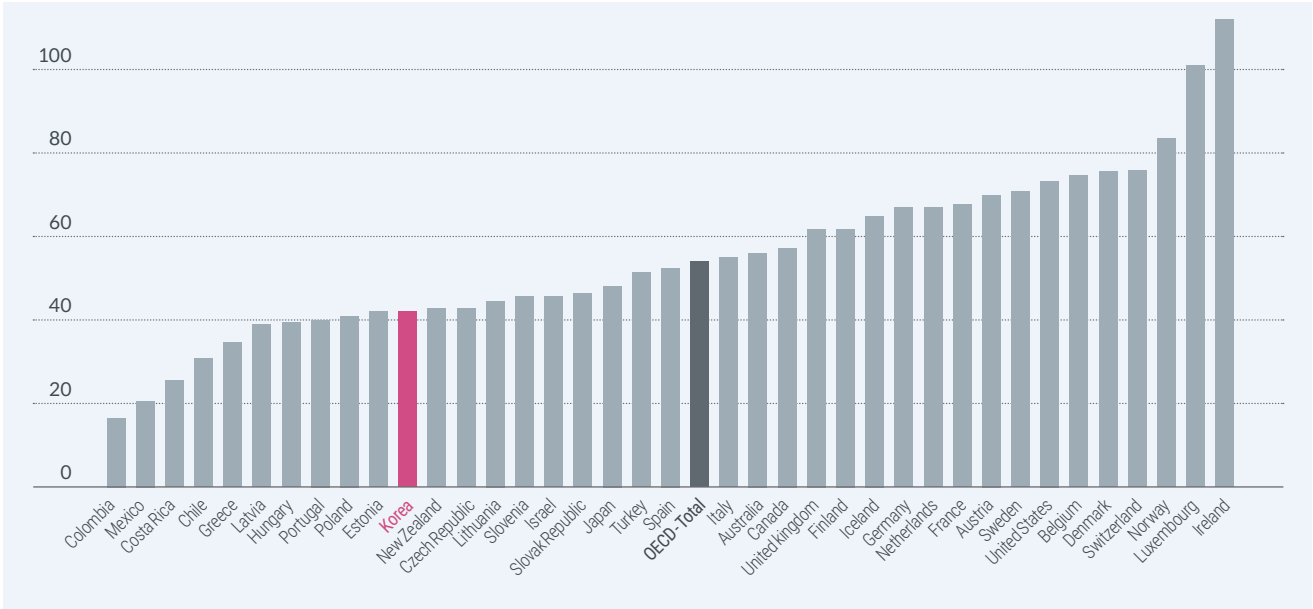
[그림 1] 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2020년



자료: OECD Stat.

- 긴 근로시간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per hour worked)은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27위에 해당
 - 2020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40.5달러)보다 1.2달러(2.96%) 증가한 41.7달러로, 이는 한국 근로자 1인이 1시간 동안 생산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를 의미함
 -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111.8달러)로 한국의 약 3배이고, 룩셈부르크(96.7달러), 노르웨이(85.5달러), 덴마크(75.4달러), 미국(74.5달러) 순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OECD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비교: 2020년



자료: OECD Stat.

○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년)」 분석 결과, 정규 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7.4점)와 행복 수준(6.9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 초과근로는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됨
 - 주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주 52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행복 수준 파악함

[표 1]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행복 수준: 2020년

근로시간	응답비율(%)	직무만족도		행복	
		평균	F	평균	F
40시간 미만	15.9	7.1		6.7	
40시간 ~ 52시간 미만	76.0	7.4	73.6*** (0.00)	6.9	45.0*** (0.00)
52시간 이상	8.1	6.9		6.5	

주: 1.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 모두 10점 척도 기준
 2. ***p<0.01, **p<0.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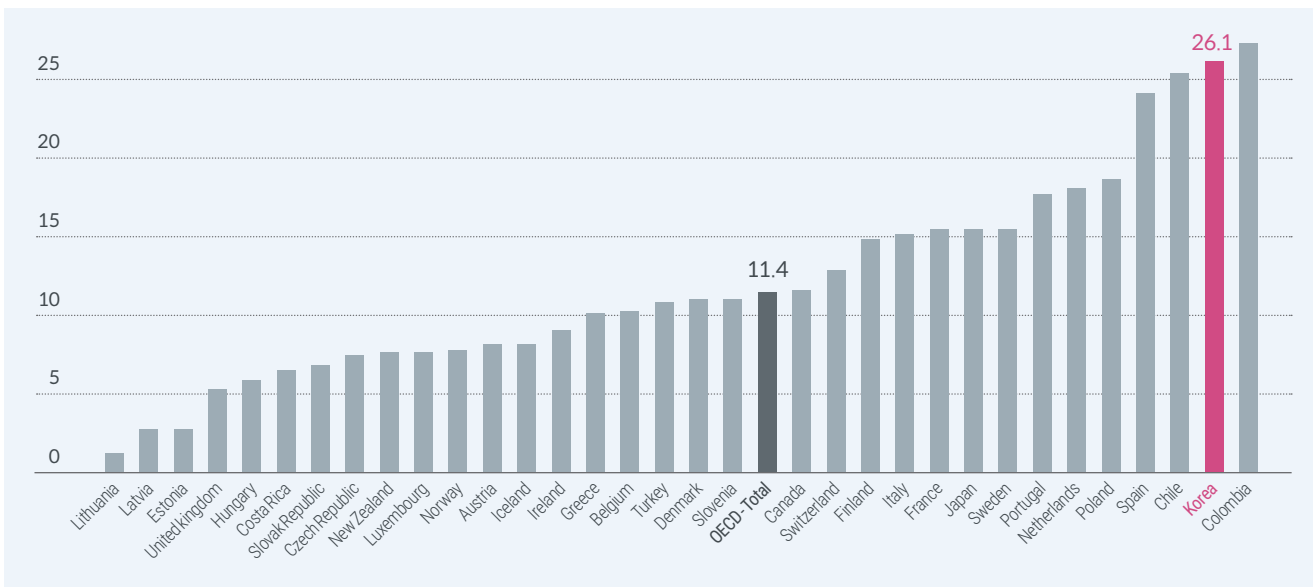
- 「한국인의 행복조사」 분석 결과,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를 하거나 시간제근로(주 40시간 미만)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 정규근로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주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음([표 1] 참조)



고용형태와 행복

-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유형화되며,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는 1인 사업자와 고용주로 구분됨
 - 한국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해당함
- OECD 회원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6.1%로 콜롬비아 다음으로 높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4%의 약 2.3배 수준임
 -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일용직, 단기간 근로계약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OECD에서는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employment)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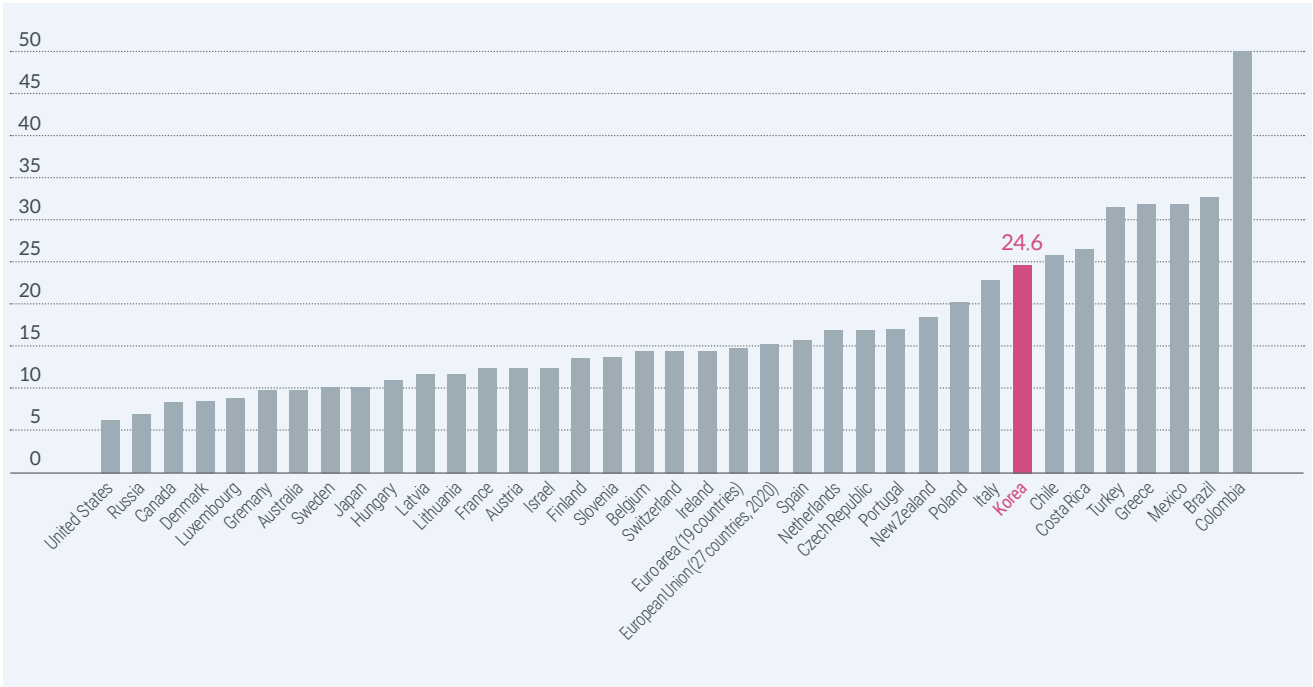
[그림 3] OECD 회원국의 비정규직 비율 비교: 2020년



자료: OECDStat.

-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근로자의 24.6%가 자영업자이고, 콜롬비아(50.1%), 브라질(32.6%), 멕시코·그리스(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다음으로 높음
 -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6.1%)의 약 4배에 해당함

[그림 4]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 비교: 2019년



주: 최신통계에 해당하는 2020년 자료에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누락되어, 2019년 기준 자료를 제시
 자료: OECD Stat

○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년)」 분석 결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7.4점)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7.3점), 비임금근로자(7.0~7.2점)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행복감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6.9점, 비임금근로자는 6.7점으로 나타남

[표 2]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행복 수준: 2020년

고용형태	응답비율(%)	직무만족도		행복	
		평균	F	평균	F
임금근로자	정규직	7.4		6.9	
	비정규직	7.3	37.1*** (0.00)	6.9	15.8*** (0.00)
비임금근로자	1인 사업자	7.2		6.7	
	고용주	7.0		6.7	

주: 1.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 모두 10점 척도 기준
 2. *** p<0.01, **p<0.05, *p<0.1

PART
IV

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

○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남

- 일로 인하여 부여되는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책임이 클 때,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① 초과근로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정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고, ②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행복 수준이 높으며, ③ 직무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인 사업자, 고용주 등 비임금근로자 순으로 감소함
 -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등 불안정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꾸려야 하는 등 일이 부과하는 책임이 클 때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은 경우는 주관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낮은,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로 보기 어려운 일자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영업자 등은 일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일에 대한 객관적 보상뿐만 아니라 주관적 보상도 충족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행복 불평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참고문헌

- 안준엽, 이경희, 길현중, 오선정, 김주영, 김종숙, 김난숙 (2015). 일과 행복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27-01, 한국노동연구원.
- 허중호, 민보경, 이채정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예비조사)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허중호, 민보경, 이채정, 이상직 (2021).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국회미래연구원.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Academic Press.
- Leary, M. R., Jongman-Sereno, K. P., & Diebels, K. J. (2014). The pursuit of status: A self-presentational perspective on the quest for social values. in The Psychology of Social Status (pp. 159-178), Springer: NY.
- Ward, S. J. & King, L. A. (2016). Poor but happy? Income, happiness, and experienced and expected meaning in lif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5):463-470.

삶의질데이터센터 소개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삶의 질 추구, 불평등 심화, 신종 감염병 등장 등 미래사회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및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는 삶의질 및 행복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입법부 중심의 독립적 증거 기반 중장기 정책·입법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학계와 국회 사이의 간격을 좁혀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인의 행복조사 소개

사회적 지표로서의 행복은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선진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 160여 개국 중 50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여 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조사된 원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